

“쫄, 광주서 재판 받아야”

〈두환〉

‘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광주지검, 재판부에 이송 반대 의견서

28일 첫 재판은 광주서 예정대로

광주지검이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이 이례적으로 이송반대 사유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강도 높게 반대함에 따라 전 대통령에 5·18민중항쟁 현장인 광주에서 직접 법의 심판대에 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에 전 전 대통령의 재판부 이송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이번 첫 재판을 앞두고 지

난 21일 광주지법에 건강 문제와 관할 위반을 들어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재판부 이송 반대 사유로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도 있다 ▲피고인(전두환)이 명예훼손 등을 부인하는 상태여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5·18 당시 헬기사격 등을 목격한 증인 40여명이 광주에 있다 ▲헬기사격 현장인 전일빌딩 등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이 광주에서 진행 중이다 등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일단 전 전 대통령 출석·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 여부와는 관계없이 첫 재판은 광주에서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



“몸에 좋은 전복 드세요”

24일 완도군 약산면 득암항 전복 선별장에서 어민들이 인공 양식장에서 거둬들이는 전복을 무게별로 분류하고 있다. 완도산 전복은 최근 여름을 앞두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락, 어민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 분야별 ‘베테랑 수사관’ 양성 확대

광주 119명·전남 101명 활약...15개 분야 87개로 확충

경찰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분야별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수사관’ 제도를 대폭 확충한다.

경찰청은 “중전 15개였던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를 87개로 확대해 분야별 수사 전문가 양성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2005년부터 특정 수사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 경력과 능력을 갖춘 경찰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해 보직인사 등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광주에는 119명, 전남에는 101명의 전문수사관이 각 분야에서 맹활약중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현장감식,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 관련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앞으로는 범죄 유형 다양화를 고려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건설·건축비리, 의료사고, 테러, 사이버성폭력, 뺑소니 등까지 분야를 대폭 확대된다.

경찰은 향후 신종범죄가 등장하면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를 신속히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수사관 확충으로 신종범죄 대응력과 수사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개방형 단속 카메라로 과속사고 막는다

도로공사, 호남선 등 8곳 시설 보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이 고속도로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개방형으로 바꾸고, 외관도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과속사고 예방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전남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 과속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식과 이

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시설을 보완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카메라를 보완한 고속도로 구간은 호남선, 남해선, 광주-무안, 광주-대구, 서해안, 고창-담양, 순천-완주, 영암-순천 등 8곳이다.

기존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부스는 가드레일 등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고,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과속사고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

기돼 왔다. 도로공사는 이동식 단속부스를 가드레일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했다. 단속부스 외관도 대폭 개선했다.

특히 단속부스의 외관이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이 내장된 캐릭터형과 운전자의 주행속도가 표출돼 자신의 현재 주행속도를 인식할 수 있는 측정형 등 두 가지 타입을 배치했다.

도로공사는 또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도 운전자가 발견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중국에 해외 3번째 ‘세종학당’

조선대학교가 케냐와 베트남에 이어 중국에서도 세종학당을 운영한다.

조선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2018년 세종학당에 조선대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세종학당이 신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와 세종학당재단은 이번 공모에 신청한 31개국 56개 기관 중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최종심사 등을 거쳐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세종학당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 정부로부터 일부 운영 경비와 교원 파견 등의 지원을 받는다.

조선대 중국 원저우 세종학당은 절강동방직업기술대학 내에서 운영한다.

두 대학은 지난 2015년 3월에 협약을 체결한 뒤 한국어학당 공역반 제1기생을 배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말 초여름 날씨...미세먼지 농도 높아

이번 주말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고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6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광주·전남 최고기온이 평년(낮 최고기온 23~27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소식은 없으며,

이 같은 초여름 날씨가 다음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나쁨’ 단계로 전망하면서 황사와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돼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출 05:22 해진 19:37 달출 15:19 달진 02:56

낮엔 더워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14/27	보성	구름많음	11/26
목포	구름많음	15/24	순천	구름많음	15/27
여수	구름많음	17/24	영광	구름많음	11/25
나주	구름많음	11/27	진도	구름많음	13/24
완도	구름많음	15/25	전주	구름많음	13/26
구례	구름많음	10/27	군산	구름많음	12/24
강진	구름많음	12/26	남원	구름많음	11/26
해남	구름많음	12/25	홍산도	구름많음	13/20
장성	구름많음	10/26			

◇ 바다 날씨

지역	앞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동~남동	0.5~1.0
	면바다	남~남서	0.5~1.0	동~남동	1.0~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	동~남동	0.5~1.0
	면바다(동)	남서~서	0.5~1.0	동~남동	1.0~2.0
서부	면바다(서)	남서~서	1.0~1.5	동~남동	1.0~2.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54	11:00	16:31	23:39
여수	12:17		06:02	
	--:--	18:47		

◇ 생활지수

- 관심: 뇌졸중
- 매우높음: 감기
- 나쁨: 미세먼지

◇ 주간 날씨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6/1(금)
☀	☀	☀	☀	☀	☀	☀
16/29	15/28	16/26	15/27	15/27	16/28	16/28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제 63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 2018. 6. 5(화) ~ 6. 8(금)

개요

- 대상 : 전국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결과발표 : 2018년 6월 21일(목)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 (20명 이상 단체할인 5,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4 SC제일은행빌딩 10층(우 61482)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